

<역할극/아버지, 아이>

수수 : 아빠, 여긴 어디예요? 여기 말고 수영장에 가서 놀고 싶은데..

아빠 : 오늘 온 곳은 서울하수도과학관이란다. 여기에는 재미있는 물 이야기가 많이 있단다.

수수 : 물 이야기요? 물은 그냥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?

아빠 : 그럼! 수수가 좋아하는 수영장의 물이나 샤워하고 빨래할 때 쓰는 물은 과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? 우리가 쓰고 버린 더러운 물은 어디로 가는 걸까? 궁금하지 않니?

수수 :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이야기예요! 아빠 말씀을 들으니 갑자기 궁금해졌어요!

아빠 : 그럼 우리 함께 과학관 탐험을 떠나볼까?

수수 : 좋아요!